

# 매니아들에게 반가운 잡지전문 공간

‘매거진 월드’ ‘잡지 전시장’ ‘잡지 도서관’ 등... 국내외 잡지 한자리에 모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지하 1층에 있는 ‘매거진 월드’(대표 김병하)는 국내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수입잡지 전문서점이다. 91년 여의도 백화점 3층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날이 확장돼 지금은 200평 규모에 4천여종에 달하는 수입잡지를 구비하고 있다.

주된 품목은 성인대중지를 비롯, 취미, 화보, 인테리어, 레저, 시사화보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대형서점에서 보기 힘든 희귀본들을 상당수 구비하고 있어 잡지 매니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공간이다.

김병하사장은 “외국잡지는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과월호 구입을 희망하는 독자들도 많다”며 “외국에 직접 나가서 잡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잡지들을 선택, 수입한다”고 말한다.

## 대전 대훈서적의 특설 코너 ‘잡지전시장’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대훈서적(대표 김주팔)은 8개월 전부터 국내 잡지를 대거 비치한 ‘잡지전시장’을 마련했다.

60여평 규모에 교보(500여종)보다 많은 총 630여종의 국내 잡지를 비치하고 있는데 주요 품목은 전문 잡지이다. 산업기술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레저, 어학, 문학·예술 분야가 골고루 비치돼 있다. 외국잡지는 기본적인 60여종만 선보이고 있다.

김양수씨(영업계장)는 “국내잡지를 홍보하는 데 그 의미를 둔 전시장”이라며 “가능한 한 국내 잡지를 많이 확보해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곳 잡지전시장은 독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테이블 7개에 좌석 28석을 마련해 독자들이 마음놓고 잡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침 시간 빼놓고는 항상 붐빈다”는 게 담당 직원의 얘기다. 서점이 단순하게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휴식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 6만 여종 소장 ‘성암 잡지도서관’

‘매거진 월드’ ‘대훈서적’ 이외에도 국내외 잡지 6만여종을 소장한 ‘성암 잡지도서관’(관장 김근수)이 있다.

## 잡지 전문서점, 잡지 전시장

### 잡지 도서관 등

### 각기 기능과 형태를 달리한

### 잡지 전문공간들은

###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 한국 잡지의 현황을

###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 잡지의 위상 제고와 독자 서비스

### 확대를 위한 잡지협회의 전시관도

### 1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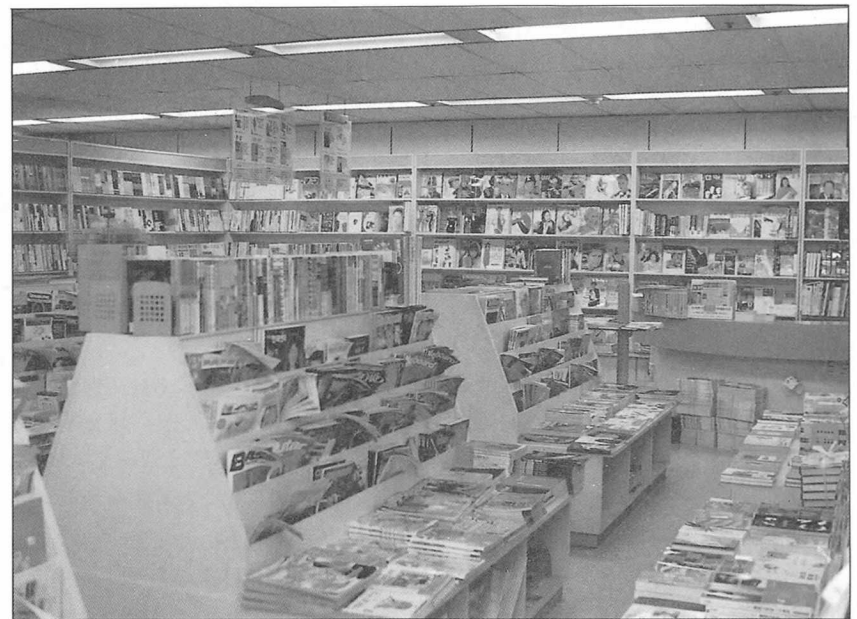
서울 명륜동에 있는 이 도서관은 일제시대 때 발간된 희귀한 잡지들을 구경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1896년 이후 창간된 《소년》의 400여종의 창간호와 100여종의 희귀본 그외 현재까지 발간된 국내 잡지 및 사보·동인지 등을 합쳐 총 6만여종에 육박하는 잡지를 비치하고 있다.

일반 잡지뿐만 아니라 전지도록 및 목록, 시·군·읍에서 발행한 지방지, 1천여권에 달하는 사전류, 일본 잡지 등을 대거 소장하고 있는 이 도서관은, 1973년에 설립한 중앙대학 한국학연구소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돼 3년 전에 비로소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한국학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김근수 관장은 “어느 도서관에 무슨 잡지가 있는지 알려주는 <잡지일람표>와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한국 잡지사를 자세히 설명한 <잡지사 연구>도 함께 비치하고 있어 누구든지 잡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비회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평일 9시~17시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다. 공휴일은 휴관.

## ‘종합전시관’도 개관 준비중

한편 한국잡지협회(회장 김영진)는 11월 중순에 ‘한국잡지 종합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종로 2가 시사영어사 빌딩(지하 2층)에 100평 규모로 공사중인 이 전시관은, 정부와 한국방송공사의 공익자금을 지원받



대전의 대훈서적이 마련한 ‘잡지전시장’ 코너. (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수입잡지 전문점 ‘매거진 월드’. (아래)

아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잡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각 분야별로 시사교양지, 여성지, 아동·청소년지, 교육·수험지, 레저·스포츠지, 문화·예술지, 과학기술지, 생활정보지, 사보 및 기관단체지 등 유가지 1천2백여종과 무가지 2천여종을 비롯, 이외에도 역사적 희귀잡지 200여종과 정부 간행물 500여종을 합쳐 총 4천여종의 잡지를 전시할 예정이다.

김영진 회장은 이 전시관이 “잡지의 위상

제고와 잡지독자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시관에 비치돼 있는 모든 잡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잡지전문서점’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잡지 종합전시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한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휴관, 관람료는 무료.

—배은희 기자